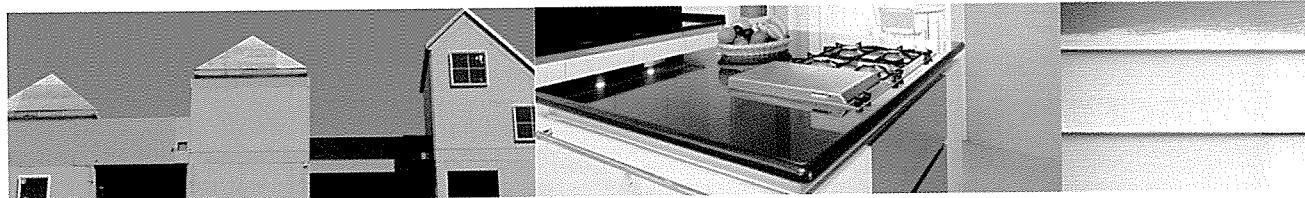


새집증후군



현대인은 하루 중 90% 이상을 실내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때문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은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피해 정도는 실외 오염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실내 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. 특히 ‘새집증후군’이라는 용어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새집으로 이사한 것을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. ‘새집증후군’이란 새로 지은 주택이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하여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두통, 눈·코·목 등의 이상, 구토, 어지러움,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.

◎ 원인

1. 물리적 원인

- 고열, 스트레스, 습도, 빛, 소음, 전자파, 전리방사선 등

2. 생물적 원인

- 세균, 기생충, 식물화분, 진드기, 벌레, 쥐, 애완동물(피부, 털) 등

3. 화학적 원인

-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, 질소산화물, 이황화유황, 오존, 염소, 광물섬유, 매연, 담배 연기, 휘발성 유기화합물(포름알데히드, 유기용제, 살충제)

실내 오염 물질의 농도는 온도와 습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,
실내온도는 18~22°C, 습도는 55% 전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.
거실 등에 인체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식목을 배치하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.



◎ 증상(세계보건기구 지정)

1. 숨쉬기가 곤란하고, 가슴이 답답하다.
2.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우가 많다.
3. 온몸이 피곤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.
4.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.
5. 눈이 따끔따끔하고 충혈되며, 목이 잘 쉰다.
6.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민증을 나타낸다.
7. 어지러우면서 구토가 난다.

◎ 예방

1. 쾌적한 온도와 습도 유지 : 실내 오염 물질의 농도는 온도와 습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, 실내온도는 18~22°C, 습도는 55% 전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.
2. 공기청정기 활용 : 유지 · 관리 철저
3. 참숯으로 오염 물질 흡수 · 제거
4. 마스킹(Masking) 방법 : 방향제를 이용하거나, 냄새가 강한 재료를 태워 이 과정에서 발산되는 냄새 성분으로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탈취방법의 일종
5. 화분 배치 : 거실 등에 인체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식목을 배치하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.
6. 유해물질 방지 제품 활용 ◎

〈출처 : 건설교통부 새집증후군 예방가이드〉